

보도자료

다시,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7. 12.(화) 9:00	배포 일시	2022. 7. 12.(화) 9:00	
담당 부서	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	책임자	학예연구관	박성원 (063-220-1022)
		담당자	학예연구사	이혜경 (063-220-1043)

국립전주박물관 소장 <신구법천문도 병풍> 보물 지정

- 동서양 천문 지식을 한 눈에 -

국립전주박물관(관장 홍진근) 상설전시실에 전시 중인 <신구법천문도병풍>이 지난 6월 23일 보물로 지정되었다.

<신구법천문도 병풍>은 조선의 전통적인 천문도(구법천문도)와 서양에서 도입된 새로운 천문도(신법천문도)가 나란히 그려져 있어 동서양의 천문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.

이 천문도는 총 8폭으로 구성되어 있다.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 1~3폭에는 조선의 대표적인 천문도인 ‘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’를 그렸고, 이어지는 4~7폭에는 서양의 천문 지식이 담겨 있는 천문도로, 태양이 지나가는 길인 황도黃道를 기준으로 ‘황도북성도’와 ‘황도남성도’를 그렸다. 마지막 8폭에는 태양과 달, 토성, 목성 등을 그린 일월오성도日月五星圖를 배치하였다.

<신구법천문도 병풍>은 1395년(태조 4년) 제작된 조선의 천문도와 서양 선교사 쾨글러(Ignatius Kögler, 1680~1746)의 천문도에서 영향을 받은 서양식 천문도가 그려져 있어 동서양의 천문 인식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. 또한 천문도가 그려지는 과정에서 활용되었던 천문학, 기하학, 수학 등 당시 과학기술의 면모를 엿볼 수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며, 정교한 필치로 다채로운 채색과 금니金泥를 사용한 대형 병풍으로 조선 후기 병풍 그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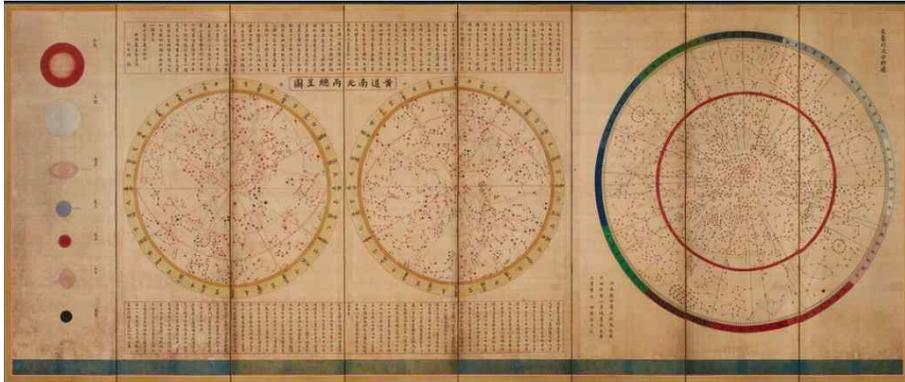
의 품격을 보여준다.

<신구법천문도병풍>은 현재 국립전주박물관 상설전시실 2층 ‘전주와 조선 왕실’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다. 태조太祖(1335~1408), 영조英祖(1694~1776)를 그린 어진御眞과 효종孝宗(1619~1659) 등 왕이 쓴 글씨 등이 함께 전시되어 있어 조선왕실의 다양한 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다.

붙임: <신구법천문도 병풍> 사진



붙임 참고 사진



<신구법천문도 병풍>, 조선후기, 비단에 채색, 각 폭 170.3×55.7cm, 국립전주박물관